

高世栻의 生涯와 그의 著書에 나타난 醫學思想에 關한 考察

이동은·윤창열*

關於高世栻의 生涯和 醫學思想之 考察

李東垠·尹暢烈

大田大學校 韓醫學科 原典學專攻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高世栻, 字士宗, 浙江錢塘人, 生于公元1637年, 卒年未詳. 張志聰講學于侶山堂, 高世栻遂往從學. 自此參考『傷寒』、『金匱』、『神農本草』、『素問』和『靈樞』等, 臨證必究其本源, 用藥不同于俗流. 著有『本草崇原』、『黃帝內經素問直解』、『醫學眞傳』等書.

高世栻示內經乃醫學之正道, 應用臨證. 醫學思想的特色, 一, 糾誤正訛, 嚴謹認真, 高世栻詮解『內經』, 在忠于原文的前提下, 衍文者去之, 倒置者移之, 訛誤者改之, 其所刪、所移、所改必于注中說明原貌爲何, 這樣就使得讀者能够兩相比較, 以識眞僞二、探討臟象, 多出創見, 高世栻對臟腑的發揮, 不落俗套, 使人耳目一新, 三、五運六氣, 發揮尤多, 說明高世栻分析外感病機重視人身內因, 外感六淫必隨人身運氣之偏盛偏衰而化, 用五運六氣之理分析藥性, 指導用藥.

關鍵語 : 高世栻, 糾誤正訛, 探討臟象, 五運六氣

I. 緒論

高世栻의 字는 士宗으로 淸初 浙江省 錢塘人이다. 西紀 1637년에 출생하였으며 사망 시기는 未詳이다. 집이 매우 가난하여 科擧及第 학문을 하지 못하고 倪先生을 따라 醫學을 배우게 되었다. 23세에 개업하여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病을 治療함에 꽤 效驗이 있어 世間의 명성을 얻게 되었다. 28세에 자신이 痢疾에 걸려 매우 危篤한 이후로 깨달은 바가 있어 侶山堂에 가서 張志聰 에게 醫學을 배웠다. 高世栻의 스승인 張志聰은

字는 隱菴이고 浙江省 錢塘人으로 淸初에 著名 한 醫家의 한명이다. 張志聰은 內經의 研究成果 가 두드러진다. 張志聰은 醫理에 精通하였고 또한 學文이 嚴格하였다. 그는 侶山堂 書齋에서 學友와 門人 수십 명을 모아 5년 동안 集團討論을 하여 『黃帝內經素問集注』를 완성하고 이어서 『黃帝內經靈樞經集注』를 완성하였다¹⁾. 그에게서 『傷寒』, 『金匱』, 『神農本草』와 『素問』, 『靈樞』 등의 책을 깊이 공부하였고, 이전에 하던 공부는 모두 醫學의 根源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기를 十年에 醫理에 큰 진전이 있게 되었으며 辨證施治에 있어 그 根本原因을 窮究하고 處方을 하고 藥을 썼으니 그 방법이 당시의 流行과는 전혀 달랐다. 代表的인 著書로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 교신저자 : 윤창열 · E-mail : yooney@dju.ac.kr
· 채택일 : 2008. 07. 17

는 『本草崇原』, 『黃帝內經素問直解』, 『醫學眞傳』 등이 있다. 張志聰이 著述하다 끝내지 못하자 이를 이어받아 著述한 『本草崇原』은 『神農本草經』을 역사상 처음으로 注釋한 本草學 專門書이다. 『神農本草經』을 따라 三品分類法으로 本草를 上, 中, 下의 三品으로 각각 한 권씩으로 총 3권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藥名, 性味, 主治, 應用 등의 『內經』의 내용을 실었고, 그 다음에 注를 하였다. 注의 주요내용은 『神農本草經』 本草의 性味, 效能主治 등과 本草의 別名, 產地, 形態, 品質, 眞僞 등이고, 그 중에는 混同하기 쉬운 本草의 形態를 描述하고 眞僞를 가리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注釋은 기본적으로 『神農本草經』 原文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았고, 이전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거나 혹은 張志聰 자신이 體得한 것을 밝혔는데 실용가치가 비교적 높은 本草學 書籍이다²⁾. 『黃帝內經素問直解』는 총 9권이다. 張志聰은 『內經』, 『素問』, 『靈樞』에 모두 『集注』를 썼는데 高世栻은 이를 두고 뜻이 너무 어렵다고 여기고 이 책을 編纂함으로 그 뜻을 直接的이고 明確하게 하고 經에 依據해 解釋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³⁾. 『醫學眞傳』은 張志聰이 門人들을 모아서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그것을 편집하여 『侶山堂類辯』一卷을 만든 것에 이어 高世栻 역시 훗날 이를 繼承하여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이를 編輯하여 이름한 것이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4가지 分野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基礎理論 分野로 여기에는 臟腑經絡, 氣血, 六淫, 七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는 診斷 分野로 여기에는 舌診, 診脈의 大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는 辨證施治 分野로 여기에는 內科의 咳嗽, 癰, 痢와 小兒科의 痘, 瘡와 婦人科의 胎產 등의 病症이 기재되어 있으며, 넷째는 方藥 分野로 여기에는 方藥, 用藥의 大法, 藥을 判別하는 大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醫學경험과 臨證에서 체득한 것을 근거로 著述하여 後學에게 入門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臨床에 관련된 病證의 辨證施治와 經驗을 소개함으로써 醫를 啓發하였다⁴⁾.

高世栻의 醫學研究는 經文에 根本을 두었고 臨床에 바탕을 두었으며, 醫學思想이 獨創의이고 直接的이며 簡潔하다. 이에 그의 生涯와 著書 및 醫學思想에 대하여 연구하여 얻은 바가 있어 보고하는 바이다.

II. 本 論

1. 高世栻의 生涯

高世栻의 字는 士宗으로 清初 浙江省 錢塘人이다. 西紀 1637년에 출생하였으며 사망 시기는 未詳이다. 어려서 부친을 잃고 집이 매우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쳐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科擧及第 학문을 하지 못하고 倪先生을 따라 醫學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藥性全生集』, 『名醫指掌』, 『傷寒五法』, 『藥方歌括』 등을 수업 받으며 이를 醫學의 道로 여겼다. 23세에 개업하여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病을 治療함에 꽤 效驗이 있어 世間の 名성을 얻게 되었다. 康熙甲辰年(1664) 7월 중순에 痢疾에 걸려 매우 危篤하였는데 당시 유명한 醫師를 데려다 診治를 하였지만 藥을 쓸수록 病은 심하여져 한 달이 넘어도 낫지를 않았다. 결국 藥을 먹지 않았고 한겨울이 되니 痢疾이 저절로 멎었다. 이에 “醫之不可爲也. 醫治我若是我治人想亦若是. 以醫覓利 草菅人命 謂天理何! (醫師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醫師가 나를 治療하는데 이러하고 나 역시 다른 이를 治療하는 것이 이와 같다. 醫로서 利益을 貪하고 人命을 草芥같이 여기는 것을 天理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개탄하였다. 당시 隱菴 張志聰이 侶山堂에서 講學을 하고 있어 高世栻은 그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였다. 高世栻의 스승인 張志聰은 字는 隱菴이고 浙江省 錢塘人이다. 清代 康熙年에 태어나 일찍이 名醫 장수 진에게 醫學을 배웠고 清初에 著名한 醫家의 한명이 되었다. 著書로는 『黃帝內經素問集注』, 『黃帝內經靈樞經集注』, 『傷寒論宗印』, 『傷寒論集注』, 『金匱要略集注』, 『侶山堂類辯』, 『本草崇原』, 『鍼灸秘典』 등이 있

다. 『鍼灸秘典』은 遺失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전해진다. 張志聰은 內經의 研究成果가 두드러진다. 張志聰은 醫理에 精通하였고 또한 學文이 嚴格하였다. 그는 侶山堂 書齋에서 學友와 門人 수십 명을 모아 5년 동안 集團討論을 하여 『黃帝內經素問集注』를 완성하고 이어서 『黃帝內經靈樞經集注』를 완성하였다⁵⁾. 그에게서 『傷寒』, 『金匱』, 『神農本草』와 『素問』, 『靈樞』 등의 책을 깊이 공부하였고, 이전에 하던 공부는 모두 醫學의 근원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기를 十年에 醫理에 큰 진전이 있게 되었으며 자신은 이를 “雖未能窺茶堂奧 而論證施治已不同於往昔之見病治病(비록 醫學의 深奧한 理致를 모두 알지는 못하더라도 論證施治가 예전에 病을 대하고 治療하던 것과는 다르게 되었다.)”라고 말하였다. 그 당시에는 病을 風痰, 氣火, 感寒, 停食 등에 執着해서 辨證하고 治療하였다. 이에 반해 高世栻은 辨證施治에 있어 그 根本原因을 窮究하고 處方을 하고 藥을 썼으니 그 방법이 당시의 流行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명성은 점점 張志聰과 엇비슷하게 되었다.

2. 高世栻의 著書

著書로는 張志聰이 著述하다 끝내지 못하자 이를 이어받아 著述한 『本草崇原』이 있다. 『本草崇原』은 『神農本草經』을 역사상 처음으로 注釋한 本草學 專門書이다. 전체 3권으로 『神農本草經』을 따라 三品分類法으로 本草를 上, 中, 下의 三品으로 각각 한권씩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종류의 本草를 먼저 『內經』에 나온 藥名, 性味, 主治, 應用 등을 실었고, 그 다음에 注를 하였다. 注를 한 문장 중에는 다시 큰 글자로 주한 것과 작은 글자로 注한 것의 구분이 있는데 큰 글자 注의 주요내용은 『神農本草經』 本草의 性味, 效能主治 등을 실었고 작은 글자 주의 주요내용은 本草의 別名, 產地, 形態, 品質, 眞僞 등이고, 그 중에는 混同하기 쉬운 本草의 形態를 描述하고 眞僞를 가리는 것에 대해 詳細히 설명하였다. 이것은 『神農本草經』의 原文을 읽는 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의 注釋은 기본적으로

『神農本草經』 原文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전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거나 혹은 張志聰 자신이 體得한 것을 밝혔는데 실용가치가 많다. 책의 큰 글자 注중에서 “愚按”은 張志聰이, 작은 글자 주중에서 “按”은 高世栻이 쓴 것이다. 이 책은 최초로 靑代 王琦가 『醫林指月』 叢書에 收錄하여 乾隆 32년에 첫 발간되었다. 五運六氣 理論을 運用하여 300가지 本草의 藥性을 적절하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실용가치가 비교적 높은 本草學 書籍이다⁶⁾.

『黃帝內經素問直解』는 총 9권이다. 張志聰은 『內經』의 『素問』, 『靈樞』에 모두 『集注』를 썼는데 高世栻은 이를 두고 뜻이 너무 어렵고 失도 明確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을 編纂함으로 그 뜻을 直接的이고 明確하게 하고 經에 依據해 解釋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素問』은 王冰에서부터 注하였는데 이미 古本과는 달랐다. 林億 등이 다시 校訂을 덧붙였는데 얻은 것도 물론 많았지만 잃은 것도 면할 수 없었다. 歷代 注家들은 각각 뜻을 넣거나 뺐는데 高世栻은 이에 대해 “字句文義 有重複而不作衍文者 有倒置而未經改正者 有以訛傳訛而弗加詳察者. 余細爲考較 確參訂正 庶幾上補聖經 下裨後學.(字句와 文義가 重複되었으나 衍文이 아닌 것도 있고, 倒置되었는데 改正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 전하였으므로 詳細히 살피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상세히 고찰하고 비교하여 확실히 訂正하니 위로는 聖經을 補充하고 아래로는 後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의 經文에 대한 이해는 一貫되고 精通하였다⁷⁾.

그 외에 『金匱直解』, 『醫學直解』를 著述하였다. 張志聰은 高世栻의 스승으로 門人들을 모아서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그것을 編輯하여 『侶山堂類辯』 一卷을 만들었다. 高世栻 역시 훗날 이를 繼承하여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이를 編輯하여 『醫學眞傳』이라 이름하였다. 이 책은 靑나라 康熙38년(1699)년에 처음 出刊되었고 후에 乾隆年間에 王琦가 『醫林指月』 叢書 중에 모아서 出刊하였다⁸⁾. 『醫學眞傳』에 대하여 그는

『黃帝內經素問直解』에서, “『醫學眞傳』之梓蓋本神農, 黃帝, 仲景諸書 而詳明識證施治, 品方用藥之法也. 余嘗謂聖賢經論 猶布帛菽粟 布帛禦寒而必爲之衣 菽粟救饑而必爲之食 『醫學眞傳』亦爲衣而使人可衣 爲食而令人可食也 然必經論俱成 而後梓也 故有待也.(『醫學眞傳』의 출판은 神農, 黃帝, 仲景의 여러 책에 本하여 識證施治와 品方用藥의 法을 상세히 밝혔다. 내가 일찍이 聖賢의 經論은 布帛과 菽粟과 같다고 하였는데 布帛은 寒을 막아주려면 반드시 옷을 만들어야 하고 菽粟은 배고픔을 구하려면 반드시 음식을 만들어야 하듯 『醫學眞傳』도 역시 옷이 되어 사람으로 하여금 입을 수 있고 음식이 되어 먹을 수 있다. 이러하여 분명 經과 論을 모두 이론 이후에 출간해야 하니 뒷사람을 기다린다.)⁹⁾” 라고 自評하였다. 이 책의 내용은 주로 4가지 分野로 나눌 수 있다.

- 1) 基礎理論 分野. 여기에는 臟腑經絡, 氣血, 六淫, 七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 診斷 分野. 여기에는 舌診, 診脈의 大法 등이 기재되어 있다.
- 3) 辨證施治 分野. 여기에는 內科의 咳嗽, 癰, 痢와 小兒科의 痘, 疔와 婦人科의 胎產 등의 病症이 기재되어 있다.
- 4) 方藥 分野. 여기에는 方藥, 用藥의 大法, 藥을 判別하는 大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醫學경험과 입증에서 체득한 것을 근거로 저술하여, 단지 方書를 閱覽하고 經論에 밝지 못한 階단을 없애려 노력하였으며 醫學과 관련된 基礎理論을 闡明함으로써 後學에게 入門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臨床에 관련된 病證의 辨證施治와 經驗을 소개함으로써 醫를 啓發하였다¹⁰⁾.

高世栻은 『醫學眞傳』에서 自述을 통해 자신의 生涯와 醫學思想에 대해 敘述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病을 風痰, 氣火, 感寒, 停食 등에 執着해서 辨證하고 治療하였다. 이에 반해 高世栻은 辨證施治에 있어 그 根本原因을 窮究하고 處方을 하고 藥을 썼으니 그 방법이 당시의 유행과는 전혀

달랐다. 이로 인해 당시 醫師들이 모두 高世栻을 두고 “人咸謂余偏執(사람들이 모두 나를 偏僻되고 고집이 세다고 하였다)”고 비판하였다. 이에 대하여 高世栻은 “人命攸關 余豈故爲離奇而偏執耶? 夫祇閱方書 不明經論 知其外 不知其內 則視余誠偏矣; 以藥試病 中無定見 究其末 不究其源 則視余誠執矣(人命에 관계되는 것에 있어 내가 어찌 일부러 奇異한 것을 하고 偏見을 固執하겠는가? 단지 方書만을 閱覽하고 經論을 잘 알지 못하고 外的인 것은 알지만 內的인 것을 모른다면 나를 보고 정말 偏하다 할 것이며, 藥으로 病을 시험하고 자신만의 見解가 없고 末만 窮究하고 根源을 窮究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고 정말 執着한다고 할 것이다.)”라고 叱咤하였다. 또한 “蓋醫理如剥蕉心 剥至無可剥 方爲至理. 以至理而論病 則大中至正 一定不移 而豈偏執之謂哉!(醫學의 理致는 芭蕉의 心を 까는 것과 같아 까도 까도 다 깎 수가 없어야 至極한 理致가 된다. 至極한 理致로 病을 論하면 大中至正하고 一定하여 움직이지 않는데 어찌 偏執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여 醫學을 함에 經論을 공부하여 理致를 窮究해야 함을 力說하였다. 당시의 門類를 나눈 方書에 대하여서는 모두 가치가 없다고 말하면서 『薛氏醫案』, 조씨의 『醫貫』, 『醫宗必讀』, 『婁子言醫』 등의 책은 모두 方術의 聰명한 變通이지만 神農, 軒岐, 仲景의 學術과 一脈相通하는 大道는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方書에서 “不知十二經絡 開口舉手便錯; 不明五運六氣 讀盡方書無濟. 病有標 復有本; 求得標 只取本; 治千人 無一損(十二經脈을 알지 못하면 입을 열고 손을 들면 모두 틀린다. 五運六氣에 밝지 못하면 아무리 方書를 읽어도 사람을 구제할 수 없다. 病에는 標가 있고 本이 있으니 標를 求得하고 本을 取하면 천명을 治療하는데 한명도 損이 없다.)”를 引用하며, 『醫學眞傳』을 傳授함으로써 正道를 보여주고 잘못된 길을 排斥하여 공부하는 자로 하여금 慎重하게 할 것을 당부하였다.

3. 高世栻의 醫學研究 特徵

1)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高世栻은 內經을 注하는데 原文을 나누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全文을 注釋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黃帝素問直解』를 예로 들면 이 책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王冰이 注本한 24권을 다시 編次해서 9권으로 하여 古本の 순서를 복구하였다.

古本の 없어진 刺法論과 本病論을 別本으로 收錄하여 보충하여 넣었다.

每篇의 題目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篇의 大義를 종합하여 簡潔한 언어로 概括하여 篇의 제일 앞에 덧붙였다.

各篇의 經文에 대해 내용의 뜻에 근거하여 小節로 나누고 每節의 뒤에는 簡潔明瞭한 詮注를 달았다.

素問에 全文注釋을 단 醫家로는 高世栻의 전에는 唐代 王冰, 明代 馬蒞와 高世栻의 스승인 張志聰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經文中에 衍文, 錯簡, 訛誤 등을 일일이 校訂하지는 못했다. 高世栻은 상세히 연구하여 일일이 訂正하였다. 訂正한 부분에는 다른 注家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도 많았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高世栻의 補正을 거치면서 읽는 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素問·至眞要大論』중 “諸熱瘡瘡 皆屬于火. 諸痛痒瘡 皆屬于心”의 두 條文을 歷代 注家は 틀렸다고 의심하지 않았지만 유독 高世栻은 이 條文 中에서 “心”은 “火”의, “火”는 “心”의 잘못된 표기라고 인식하고 정확한 條文은 “諸熱瘡瘡 皆屬于心. 諸痛痒瘡 皆屬于火”가 되어 한다고 하였다. 高世栻은 그 節에 注한 文章 中에서 “諸熱而目瘡瘡 病皆屬于心 熱氣通于心也”라고 指摘하였다. “諸痛痒瘡 病皆屬于手少陽三焦之火”라 하여 心은 主神明하고 通熱化하니 熱로 病이 되어 目瘡神昏하고 經脈瘡瘡하는 것은 邪氣가 心包에 陷하여 熱이 神明을 擾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皮膚肌腠가 瘡疹痛痒하는 病은 어느 經으로 歸經하는지 論할 것 없이 모두 火熱의 所致가 된다. 臨床의 證은 확실히 이와 같다. 그래서 高世栻이 고치고 注한 것은 모두 매우 적절하다. 다시 문장을 보면, “諸熱

瘡瘡” 條文은 肝, 心, 肺 脾 四臟의 病機와 긴밀한 연관이 있으니 心의 病機로 말하는 것은 문장의 뜻이 끊어지지 않는다. “諸熱瘡瘡 皆屬于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

『素問·陰陽別論』의 “鼓一陽曰鈞, ……鼓陽盛急曰弦”을 高世栻은 문장 中 “弦”은 “鈞”의, “鈞”는 “弦”의 잘못된 표기라고 보았으니 “鼓一陽曰弦, ……鼓陽盛急曰鈞”라고 고쳐야한다고 하였다. 注에서 “脉體內應五藏 外合四時 皆有胃氣 故鼓一陽曰弦 鼓動一陽初升之氣 則脉微弦 內應肝臟 外合春生之木氣也. ……鼓陽盛急曰鈞 鼓動陽氣 既勝且急 則脉微鈞 內應心臟 外合夏長之火氣也.(脉體는 五藏와 內應하고 四時와 外合하며 모두 胃氣가 있다. 故로 一陽이 鼓動하는 것을 弦이라 하는데 鼓動一陽初升之氣는 脉微弦하니 肝臟과 內應하며 春生之木氣와 外合한다. ……陽이 鼓動하는데 盛急한 것을 鈞라 하는데 陽氣가 鼓動하는 것이 이미 勝하고 또한 急하면 脉微鈞하니 心臟과 內應하고 夏長之火氣와 外合한다)”라 하였다. 『素問·玉機眞藏論』의 “春脉者 肝也 東方木也 萬物之所以始生也 故其氣來 軟弱輕虛而滑 端直而長 故曰弦.(春脉은 肝이고 東方木이다. 萬物의 始生하는 바이다. 故로 其氣가 오는 것이 軟弱輕虛하고 滑하며 端直하고 長하니 故로 弦이라 한다.)” “夏脉者 心也 南方火也 萬物之所以盛長也 故其氣來 盛去衰 故曰鈞(夏脉은 心이고 南方火이다. 萬物의 盛長하는 바이다. 故로 其氣가 오는 것이 盛去衰하니 故로 鈞이라 한다.)”를 들어 말하고 있다. 서로 참고해서 보면 위 문장에 대한 高世栻의 訂正과 注釋은 맞는 것이다.

高世栻의 內經詮解는 原文에 充實한다는 前提下에서 衍文은 빼고 뒤바뀐 것은 옮기고 잘못된 것은 고쳤으니, 빼고 옮기고 고친 것은 원래는 어땀했는지를 반드시 설명하였고, 이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여 眞僞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진지한 인식의 태도는 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2) 臟象을 探討하고 獨創의인 見解을 많이 내

었다.

臟象學說은 韓醫學 基礎理論의 중요한 내용이다. 高世栻은 이 부분의 연구에 꽤 성과가 있어 몇몇 獨創的인 見解를 내놓았다.

『素問·六節藏象論』에 “肝者 罷極之本”의 說이 있다. 이 條文에 대해 역대 注家들은 대부분 “罷極”을 “疲勞”, “疲乏”으로 解釋했고 現代 醫家들도 역시 대개 이를 따르는데 “罷”의 음과 뜻을 “疲”와 같은 것으로 인식했다. 이런 見解는 “肝者 罷極之本”을 病理의 일종으로 解釋한 것이다. 高世栻의 觀點은 이와 달라 注에서 “罷 罷也. ……肝者 將軍之官 如熊羆之任勞 故爲罷極之本 (罷는 羆이다. ……肝은 將軍之官으로 熊羆의 任勞와 같다 故로 罷極之本이 된다)”라고 하였다. 사람이 疲勞를 견딜 수 있는 것은 肝의 機能에 있다. 肝이 罷極之本이 된다는 것을 生理的인 角度에서 解釋한 것은 古代의 注家들 中에선 거의 없다. 宋代 集韻에는 “羆 或省作罷”라 기재되어 있어 “罷”를 “羆”의 簡體字라고 설명하여 宋代 에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爾雅翼에서는 “羆”를 “熊之雌者 力尤孟(곰의 암컷으로 힘이 더 세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종합해보면 罷極은 힘의 대표이다. “肝者 罷極之本”라는 문장은 肝은 人體 힘의 원천이고 疲勞를 견딘다는 뜻을 내포한다. 高世栻이 말하는 “熊羆之耐勞(곰이 疲勞를 견디는 것과 같이)”는 經文의 本 뜻에 비교적 부합한다.

三焦는 六腑의 하나인데 그 形體와 이름에 대한 논쟁은 歷代 醫家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였다. 高世栻의 이전 三焦에 대한 인식은 陳言, 馬蒔의 有形三焦說과 孫一奎의 無形三焦說이 있었다. 高世栻의 三焦에 대한 인식은 三焦의 이름과 有形無形의 논쟁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기능에 더 중점을 두었다. 高世栻은, 三焦는 上中下의 少陽之氣가 주관하는 것이고 비록 六腑의 하나이지만 나머지 五腑와는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다른 五腑는 각각 相應하는 臟이 있어 相合하니 『靈樞·本輸』에서 “肺合大腸 大腸者 傳道之府 心合小腸 小腸者 受盛之府 肝合膽 膽者 中精之府 脾合胃 胃者 五穀之府 腎合膀胱 膀胱者 津液之

府也(肺는 大腸과 合하며 大腸은 傳道之府라. 心은 小腸과 合하며 小腸은 受盛之府라. 肝은 膽과 合하며 膽은 中精之府라. 脾는 胃와 合하며 胃은 五穀之府라. 腎은 膀胱과 合하며 膀胱은 津液之府라)”라 말하고 있다. 三焦는 비록 合하는 臟이 없지만 두 臟과 연관이 있으니 바로 아래문장에서 “少陽屬腎 腎上連肺 故將兩臟(少陽은 腎에 屬하고 腎은 위로 肺와 連하니 故로 兩臟을 將한다)”라 말하고 있다. 高世栻은 『醫學眞傳』중 三焦편에서 “少陽主三焦 下焦將腎臟 上焦將肺臟也. 雖將兩臟 職不離腑(少陽은 三焦를 主하고 下焦는 腎臟을 將하고 上焦는 肺臟을 將한다. 비록 兩臟을 將하지만 職能은 腑와 떨어뜨릴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三焦는 六腑의 하나로 간주하지만 그 기능은 『靈樞·本輸』에서 “三焦者 中瀆之府也 水道出焉 屬膀胱 是孤之府也. 是六府之所與合者.(三焦는 中瀆之府이다. 水道를 出하고 膀胱에 屬하니 孤之府이다. 이는 六府와 合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한 것과 같다. 이에 대해 高世栻은 문장에서 “由此推之 則三焦爲中瀆腑 屬膀胱而出水道 無臟與合 是孤之腑也. 孤者 獨也 謂獨任其上中下之化機也. 卽曰將乎兩臟 又曰六腑與合 是三焦一腑 則較之諸腑而獨尊 豈如一腑合一臟而已耶!(이로써 유추해 보면 三焦는 中瀆腑가 되고 膀胱에 屬하여 出水道하며 合하는 臟이 없으니 孤之腑이다. 孤는 獨이다. 上中下焦의 化機를 홀로 맡는 것을 말한다. 卽 兩臟을 將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六腑와 合하는 것은 三焦一腑는 모든 腑와 비교하여 獨尊하니 어찌 一腑가 一臟에 合하는 것과 같겠는가!)”라 해석하였다. 經文 중 “是六腑與合”을 여태까지는 六腑와의 合하는 바를 통틀어 논하는 總結語로 理解되어 왔다. 그러나 高世栻은 이 문장은 三焦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六腑 모두가 三焦와 相合한다는 뜻이 되고 따라서 三焦의 지위는 모든 腑의 위가 되고 獨尊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說은 탁월한 見解이다. 三焦의 出水道하는 기능은 반드시 위로는 肺의 通調에 의지하고 아래로는 腎의 氣化에 의지하여 전체적으로 協助하여 기능이 완성된다. 더군다나 『靈樞·營衛生會』에서

는 “上焦出胃上口 中焦并胃中 下焦別回腸 注于膀胱.(上焦는 胃의 上口에서 出하고 中焦는 胃中에 并하고 下焦는 回腸에서 別하여 膀胱으로 注한다.)”라 하였다. 또한 “上焦如霧 中焦如漚 下焦如瀆.(上焦는 霧와 같고 中焦는 漚와 같고 下焦는 瀆과 같다.)”라 하였다. 三焦는 실제로 六腑의 기능을 개괄하므로 六腑와 合한다고 말했다. 그래서 高世栻은 “三焦雖無有形之腑 實有所出所歸之部 抑且徹上徹下 徹外徹內 較諸腑而尤尊也.(三焦는 비록 有形之腑는 아니지만 실제로는 所出所歸하는 부분이 있고, 게다가 徹上徹下하고 徹外徹內하니 諸腑와 比較하여 더욱 尊하다.)”라고 정리하였다.

이상의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高世栻이 臟腑에 대해 밝힌 것은 확실히 常套의이지 않고 새로웠다.

3) 五運六氣에 대해서는 더욱 見解가 많았다.

五運六氣 學설은 『素問』七篇大論에서 보인다. 高世栻은 이것을 매우 중요시했다. 七篇大論의 앞머리에서 “天地之陰陽四時 備于人身 人身之寒熱虛實 同于天地.(天地의 陰陽四時は 人身에도 갖추어져 있고 人身의 寒熱虛實은 天地와 같다.)”라 하였다. 天人相應을 運用하는 관점으로 運氣를 指導하였고 多方面에서 見解를 밝혔다.

高世栻은 天地와 人物은 陰陽五行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五運은 五行으로 木火土金水이다. 六氣는 三陰三陽으로 厥陰, 少陰, 太陰, 少陽, 陽明, 太陽이다. 五運은 五行과 合하고 六氣도 五行과 合하며 少陰, 少陽은 함께 火를 主한다. 天은 五運六氣로써 四時를 이루고 萬物을 生하며, 人은 五運六氣에 의지해 有形을 이루고 無形에 合한다. 無形에 合한다는 것은, 人身은 有形하며 無形의 五運六氣에 合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五運六氣는 醫學의 根本이다. 『醫學眞傳·五運六氣』중에서 “五運六氣實醫學之根源 神農本之而著藥性 黃帝本之而著『內經』 仲師本之而撰『傷寒』, 『金匱』.(五運六氣는 實로 醫學의 根源이다. 神農은 이에 本하여 藥性을 著述하였고, 黃帝는 이에 本하여 『內經』을 著述하였

고, 仲景先師는 이에 本하여 『傷寒』, 『金匱』를 撰하였다.)”라 지적하였다. 高世栻은 『內經』 등의 經典이 모두 오운육기에 本하여 著述되었다고 보았다. 이 說은 과장되어 사실과 맞지 않다는 말을 피할 순 없지만, 이것으로써 五運六氣를 중시하였음은 알 수 있다.

정리하면, 五運六氣는 厥陰은 主風하고 風은 木이며, 少陰은 主熱하고 熱은 火이며, 太陰은 主濕하고 濕은 土이며, 陽明은 主燥하고 燥는 金이며, 太陰은 主寒하고 寒은 水이다. 高世栻은 이를 指導하고, 臟腑, 病機, 藥性 등을 연구하여 많은 見解를 밝혔다.

五運六氣와 臟腑의 관계는 高世栻이 『醫學眞傳·臟腑經絡』중에서 “五臟者 三陰之所主也. 厥陰主肝 少陰主心腎 太陰主肺脾. 肝心脾肺腎 木火土金水也. 肝木爲風 心火爲熱 脾土爲濕 肺金爲燥 腎水爲寒 是五臟合五運 卽有風火熱濕燥寒之六氣.…… 六腑則爲三陽之所主也. 少陽主膽與三焦 陽明主胃與大腸 太陽主膀胱與小腸. 夫膽與三焦 少陽木火之氣也; 胃與大腸 陽明土金之氣也; 膀胱小腸 太陽水火之氣也. 此木火土金水火之氣 乃合三陽而主六腑也.(五臟은 三陰之所主이다. 厥陰은 主肝하고 少陰은 主心腎하고 太陰은 主肺脾한다. 肝心脾肺腎은 木火土金水이다. 肝木은 風이 되고 心火는 熱이 되고 脾土는 濕이 되고 肺金은 燥가 되고 腎水는 寒이 되니 五臟이 合五運하여 風火熱濕燥寒의 六氣가 있게 된다.…… 六腑는 三陽之所主가 된다. 少陽은 主膽과 三焦를 主하고 陽明은 胃와 大腸을 主하고 太陽은 膀胱과 小腸을 主한다. 膽과 三焦는 少陽木火之氣이고, 胃와 大腸은 陽明土金之氣이고, 膀胱과 小腸은 太陽水火之氣이다. 이들 木火土金水火之氣는 三陽과 合하고 六腑를 主한다.)”라 지적한 것과 같다. 高世栻은 臟腑는 각각 形이 있고, 形中에 각각 氣가 있고, 氣는 臟腑經絡과 연결되어 通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三陰五臟의 氣와 三陰六腑의 氣는 十二經脈과 合하여 운몸에 퍼진다.

五運六氣를 좇아 外感六淫이 病이 되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高世栻은 독특한 見解를 갖게 되었다.

다. 『醫學眞傳·六淫外感』에서 “蓋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曰六氣 風熱濕火燥寒曰六淫 天有之 人亦有之. 故居其內而通臟腑者 六氣也; 居其外而通于天者 六淫也. 天之六淫 與人之六淫 無時不感(厥陰少陰太陰少陽陽明太陽을 六氣라 하고 風熱濕火燥寒을 六淫이라 한다. 天에도 있고 人에도 있다. 그러므로 居其內하고 通臟腑하는 것은 六氣이고, 居其外하고 通于天하는 것은 六淫이다. 天의 六淫은 人의 六淫과 같으니 感하지 않는 때가 없다.)”라 지적하였다. 高世栻은 六氣와 六淫은 天과 人에 같이 있어 반드시 相應하여 서로 感한다고 인식하였다. 바로 人身 자체에 六淫이 있기 때문에 “凡有所病 皆本人身之六淫而非天之六淫也.(무릇 病이 있는 것은 모두 天의 六淫이 아니라 人身의 六淫에 本한다.)”가 된다. 人身의 五運六氣가 和平하면 비록 외부의 六淫에 感해도 病이 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人身이 邪에 感하여 病이 되는 것은 모두 스스로의 六氣의 차이이다. 『醫學眞傳·暑』에서 “若五運有虧 六氣不振 陰虛則陽盛而熱證生 陽虛則陰盛而寒證起 寒病暑病 隨人身陰陽之氣而化生者也. 如寒邪傷陽而化病 寒亦爲熱; 暑邪傷陰而化病 暑亦爲寒. 苟不以人身氣化之寒暑爲憑 而以天氣之寒暑爲定 眞殺人不用刀矣(만약 五運이 虧損되고 六氣가 不振하면 陰虛한 則 陽盛하여 熱證이 생기고 陽虛한 則 陰盛하여 寒證이 생기니 寒病과 暑病은 人身陰陽의 氣에 따라 化生하는 것이다. 寒邪가 陽을 상하여 病이 되면 寒도 역시 熱이 되고, 暑邪가 陰을 상하여 病이 되면 暑도 역시 寒이 된다. 人身氣化의 寒暑를 의거하지 않고 天氣의 寒暑로 確定하면 진실로 殺人에 刀을 쓰지 않을 뿐이다.)”라고 지적하였다. 高世栻은 外感病機를 분석하는데 人身의 內因을 중시하여, 外感六淫은 반드시 人身 運氣의 偏盛偏衰를 따라 化한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外因만을 重視한 관점과 비교해서 보다 全體의으로 본 것이다.

五運六氣의 이치를 이용하여 藥性を 분석하여 用藥을 가르치는 것은 高世栻이 理論研究를 장기간 實踐한 결과이다. 『醫學眞傳·用藥大略』中에서 “天地有五運六氣 人身亦有五運六氣 而百

卉草木亦莫非五運六氣. 五運 五行也; 六氣 亦五行也. ……百卉草木 有五方之出處 五時之生成 其中更有五色, 五臭, 五味 而合於人之五臟六腑……知藥之性 則用之無窮 取之有本……以藥性之運氣 合人身之運氣而用之 斯爲有本.(天地에는 五運六氣가 있고 人身에도 五運六氣가 있으니 百卉草木도 역시 五運六氣가 아니겠는가. 五運은 五行이고, 六氣도 五行이다. ……百卉草木은 五方の 出處가 있고 五時의 生成이 있고 그 中에는 또한 五色, 五臭, 五味가 있어 人身의 五臟六腑과 合한다. ……藥性を 알면 用藥이 無窮하고 取하는데 本이 있게 된다. ……藥性의 運氣로서 人身의 運氣에 부합하여 用藥하면 이것이 근본이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예를 들면, 高世栻은 모든 藥中 오직 人蔘이 天, 地, 人 三才의 氣를 완전히 갖추고 있어 五臟六腑의 元神을 補할 수 있고, 다른 藥은 一臟一腑를 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五臟의 眞元에 一臟이 부족한 것은 바로 人蔘을 쓸 수 있고, 水火不交한 것은 心腎의 眞元이 부족한 것으로 人蔘을 써야 하고, 天地不交한 것은 脾肺의 眞元이 痞塞한 것으로 人蔘을 써야 하고, 氣血이 不和한 것은 陰陽의 眞元이 不濟한 것으로 急히 人蔘을 써야 하고, 음식이 들어가지 않는 것은 胃口이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반드시 人蔘을 써야 한다. 高世栻이 人蔘쓰기를 좋아하고 잘 쓰는 것은 실제로 五運六氣에 의해 가르치고 人身의 本源을 중시한 것이다¹¹⁾.

III. 考察 및 結論

高世栻의 字는 士宗으로 淸初 浙江省 錢塘人이다. 西紀 1637년에 출생하였으며 사망 시기는 未詳이다. 어려서 부친을 잃고 집이 매우 가난하여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아이들을 가르쳐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리하여 科擧及第 학문을 하지 못하고 倪先生을 따라 醫學을 배우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藥性全生集』, 『名醫指掌』, 『傷寒五法』, 『藥方歌括』 등을 수업 받았다. 23세에

개업하여 醫業을 시작하였는데 病을 治療함에 꽤 效驗이 있어 世間的 명성을 얻게 되었다. 康熙甲辰年(1664) 7월 중순에 痢疾에 걸려 매우 危篤하였는데 당시 유명한 醫師를 데려다 診治를 하였지만 藥을 쓸수록 病은 심하여져 한 달이 넘어도 낫지를 않았다. 결국 藥을 먹지 않았고 한겨울이 되니 痢疾이 저절로 멎었다. 이에 개탄하며 당시 隱菴 張志聰이 侶山堂에서 講學을 하고 있어 高世栻은 그곳으로 가서 공부를 하였다. 高世栻의 스승인 張志聰은 字는 隱菴이고 浙江省 錢塘人이다. 清代 康熙年에 태어나 일찍이 名醫 장수 진에게 醫學을 배웠고 淸初에 著名한 醫家の 한명이 되었다. 그에게서 『傷寒』, 『金匱』, 『神農本草』와 『素問』, 『靈樞』 등의 책을 깊이 공부하였고, 이전에 하던 공부는 모두 醫學의 근원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공부하기를 十年에 醫理에 큰 진전이 있게 되었으며 辨證施治에 있어 그 根本原因을 窮究하고 處方을 하고 藥을 썼으니 그 방법이 당시의 流行과는 전혀 달랐다. 그의 명성은 점점 張志聰과 엇비슷하게 되었다.

代表的인 著書로는 『本草崇原』, 『黃帝內經素問直解』, 『醫學眞傳』 등이 있다. 張志聰이 著述하다 끝내지 못하자 이를 이어받아 著述한 『本草崇原』은 『神農本草經』을 역사상 처음으로 注釋한 本草學 專門書이다. 전체 3권으로 『神農本草經』을 따라 三品分類法으로 本草를 上, 中, 下의 三品으로 각각 한권씩으로 이루어졌다. 모든 종류의 本草를 먼저 藥名, 性味, 主治, 應用 등의 『內經』의 내용을 실었고, 그 다음에 注를 하였다. 注의 주요내용은 『神農本草經』 本草의 性味, 效能主治 등과 本草의 別名, 產地, 形態, 品質, 眞僞 등이고, 그 중에는 混同하기 쉬운 本草의 形態를 描述하고 眞僞를 가리는 것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注釋은 기본적으로 『神農本草經』 原文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전 사람의 경험을 종합하거나 혹은 張志聰 자신이 體得한 것을 밝혔는데 실용가치가 많다. 책의 큰 글자 注중에서 “愚按”은 張志聰이, 작은 글자 주중에서 “按”은 高世栻이 쓴 것이다. 五運六氣理

論을 運用하여 300가지 本草의 藥性を 적절하고 상세히 설명하였다. 실용가치가 비교적 높은 본초학 서적이다¹²⁾. 『黃帝內經素問直解』는 총 9권이다. 張志聰은 『內經』, 『素問』, 『靈樞』에 모두 『集注』를 썼는데 高世栻은 이를 두고 뜻이 너무 어렵고 실수도 明確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래서 이 책을 編纂함으로 그 뜻을 直接的이고 明確하게 하고 經에 依據해 解釋하여 그 뜻을 이해하기 쉽게 하였다. 高世栻은 “字句文義 有重複而不作衍文者 有倒置而未經改正者 有以訛傳訛而弗加詳察者. 余細爲考較 確參訂正 庶幾上補聖經 下裨後學.(字句와 文義가 重複되었으나 衍文이 아닌 것도 있고, 倒置되었는데 改正하지 않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을 잘못 전하고 詳細히 살피지 않은 것도 있다. 내가 상세히 고찰하고 비교하여 확실히 訂正하니 위로는 聖經을 補充하고 아래로는 後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 하며 자신감을 나타냈다¹³⁾. 『醫學眞傳』은 張志聰이 門人들을 모아서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그것을 편집하여 『侶山堂類辯』一卷을 만든 것에 이어 高世栻 역시 훗날 이를 繼承하여 侶山堂에서 講學하였고 이를 編輯하여 이름한 것이다. 이 책은 靑나라 康熙38년(1699)년에 처음 出刊되었고 후에 乾隆年間에 王琦가 『醫林指月』叢書 중에 모아서 出刊하였다¹⁴⁾. 이 책의 내용은 주로 4가지 分野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基礎理論 分野로 여기에는 臟腑經絡, 氣血, 六淫, 七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는 診斷 分野로 여기에는 舌診, 診脈의 大法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는 辨證施治 分野로 여기에는 內科의 咳嗽, 癩, 痢와 小兒科의 痘, 瘡와 婦人科의 胎產 등의 病症이 기재되어 있으며, 넷째는 方藥 分野로 여기에는 方藥, 用藥의 大法, 藥을 判別하는 大略 등이 기재되어 있다. 자신의 醫學경험과 임증에서 체득한 것을 근거로 저술하여, 단지 方書를 閱覽하고 經論에 밝지 못한 폐단을 없애려 노력하였으며 韓醫學과 관련된 基礎理論을 闡明함으로써 後學에게 入門의 길을 열어주었으며, 臨床에 관련된 病證의 辨證施治와 經驗을 소개함으로써 醫를 啓發하였다¹⁵⁾.

그의 醫學思想은 철저히 醫學의 基礎理論에 근거한 臨床醫學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는 醫學의 根本을 알지 못하며 단지 枝葉의인 것만을 공부하고 중시하는 것을 警戒하였고, 또한 책을 보고 理論적으로 그치는 것을 지적하고 臨床의인 意義에 맞게 발전시켰다. 『內經』 등을 원문에 충실하게 研究할 것을 중시하였지만, 뜻이 맞지 않거나 臨床적으로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訂正하고 자신의 見解를 피력하였다. 또한 五運六氣를 단지 理論으로만 중시하지 않고 臨床에 應用함으로써 이 부분에 獨創의 見解를 많이 제시하였다. 이러한 그의 思想은 著書인 『黃帝內經素問直解』, 『醫學眞傳』 등에 많이 나타난다.

그의 의학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신중하고 진지하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황제내경소문을 주석한 황제내경소문직해에서 高世栻은 內經을 注하는데 原文을 나누는 것에 반대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全文을 注釋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王冰이 注本한 24권을 다시 編次해서 9권으로 하여 古本の 순서를 복구하였으며, 古本の 없어진 刺法論과 本病論을 別本으로 收錄하여 보충하여 넣었다. 그리고 每篇의 題目을 해석하여 설명하고 篇의 大義를 종합하여 簡潔한 언어로 概括하여 篇의 제일 앞에 덧붙였다. 各篇의 經文에 대해 내용의 뜻에 근거하여 小節로 나누고 每節의 뒤에는 簡潔明瞭한 註注를 달았다. 또한 經文中에 衍文, 錯簡, 訛誤 등을 高世栻은 상세히 연구하여 일일이 訂正하였다. 訂正한 부분에는 다른 注家들이 소홀히 다룬 부분도 많았지만 실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고, 高世栻의 補正을 거치면서 읽는 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었다. 高世栻의 內經註解는 原文에 充實한다는 前提下에서 衍文은 빼고 뒤바뀐 것은 옮기고 잘못된 것은 고쳤으니, 빼고 옮기고 고친 것은 원래는 어떠했는지를 반드시 설명하였고, 이것은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여 眞僞를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진지한 인식의 태도는 注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2) 臟象을 探討하고 獨創의인 見解를 많이 내었다.

『素問·六節藏象論』에 “肝者 罷極之本”의 說을 역대 의가는 간의 병리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지만 고세 식은 간의 생리를 설명한 것으로 이해했다. 罷極은 힘의 대표이고 사람이 疲勞를 견딜 수 있는 것은 肝의 機能에 있다. 肝이 罷極之本이 된다는 것을 生理的인 角度에서 解釋하여 “肝者 罷極之本”라는 문장을 肝은 人體 힘의 원천이고 피로를 견딘다는 뜻을 내포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삼초에 대한 의견에서 高世栻은 三焦의 이름과 有形無形의 논쟁에 구애받지 않고 오히려 기능에 더 중점을 두었다. 高世栻은, 三焦는 上中下의 少陽之氣가 주관하는 것이고 비록 六腑의 하나이지만 나머지 五腑와는 다르다고 인식하였다. 또한 六腑 모두가 三焦와 相合하여 三焦의 지위는 모든 腑의 위가 되고 獨尊하다고 인식하였다. 몇 가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高世栻이 臟腑에 대해 밝힌 것은 확실히 常套의이지 않고 새로웠다.

3) 五運六氣에 대해서는 더욱 見解가 많았다.

天人相應을 運用하는 관점으로 運氣를 指導하였고 多方面에서 見解를 밝혔다. 高世栻은 天地와 人物은 陰陽五行의 이치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五運은 五行과 合하고 六氣도 五行과 合하며 少陰, 少陽은 함께 火를 主한다. 天은 五運六氣로써 四時를 이루고 萬物을 生하며, 人은 五運六氣에 의지해 有形을 이루고 無形에 合한다. 臟腑는 각각 形이 있고, 形中에 각각 氣가 있고, 氣는 臟腑經絡과 연결되어 通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三陰五臟의 氣와 三陰六腑의 氣는 十二經脈과 合하여 人身에 퍼진다. 五運六氣를 좇아 外感六淫이 病이 되는 것을 연구함으로써 高世栻은 독특한 의견을 갖게 되었다.

六氣와 六淫은 天과 人에 같이 있어 반드시 相應하여 서로 感한다고 인식하였다. 바로 人身 자체에 六淫이 있기 때문에 人身의 五運六氣가 和平하면 비록 외부의 六淫에 感해도 病이 되지 않

는다. 이와 반대로 人身이 邪에 感하여 病이 되는 것은 모두 스스로의 六氣의 차이이다. 外感病機를 분석하는데 人身의 內因을 중시하여, 外感六淫은 반드시 人身 運氣의 偏盛偏衰를 따라 化한다고 하였다. 이는 단지 外因만을 重視한 觀點과 비교해서 보다 全體的으로 본 것이다.

五運六氣의 이치를 이용하여 藥性を 분석하여 用藥을 가르치는 것은 高世栻 理論研究와 장기간 實踐의 결과이다. 모든 藥中 오직 人蔘이 天, 地, 人 三才의 氣를 완전히 갖추고 있어 五臟六腑의 元神을 補할 수 있고, 다른 藥은 一臟一腑를 補하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다. 高世栻이 人蔘쓰기를 좋아하고 잘 쓰는 것은 실제로 五運六氣에 의해 가르치고 人身의 本源을 중시한 것이다.

여태껏 高世栻에 관한 研究는 다른 醫家에 비해 많지 않다. 그의 醫學思想은 現代의 醫師들이 參考할만 하다 생각되니 앞으로도 그에 관한 研究가 필요하다 사료된다.

IV. 參考文獻

1.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661
2.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3.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 746
4. 高世栻. 醫學眞傳.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
5.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 661
6.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7.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 746
8. 高世栻. 醫學眞傳.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2
9.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

社. 2003. pp. 12-13

10. 高世栻. 醫學眞傳.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
11. 王洪圖. 黃帝內經研究大成. 北京. 北京出版社. 1999 pp. 666-668
12. 張志聰. 本草崇原.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2
13. 高世栻. 黃帝內經素問直解. 北京. 學苑出版社. 2003. p. 746
14. 高世栻. 醫學眞傳.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2
15. 高世栻. 醫學眞傳. 北京. 江蘇科學技術出版社. 1983 p. 1